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 미 사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 조절효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박 승 관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 미 사

박미사의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원 장 이 은 주 (인)

부위원장 이 철 주 (인)

위원 박 승 관 (인)
국문 초록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15년 5월 신종 호흡기감염증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주요 질병 위험 이슈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신문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관여도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각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3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메르스 보도에 대한 텔레비전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낮은 관여도에서 텔레비전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관여도가 낮을 때 텔레비전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예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질병 위험시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도에 의존함에 따라 질병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 지각의 수준이 형성되고 수용자의 관여도가 위험지각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메르스 보도, 미디어 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관여도, 예방행동
학번 : 2014-2232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4
  제 1 절 미디어 의존도 ........................................................................ 4
    1. 미디어 의존 이론
    2. 제안과 미디어 의존
  제 2 절 위험지각 ................................................................................. 7
    1.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2.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과 차별적 영향력 가설
    3. 위험지각과 미디어 의존도
  제 3 절 관여도 ...................................................................................... 9
  제 4 절 예방행동 ................................................................................ 11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 13

제 4 장 연구방법 .................................................................................... 15
  제 1 절 연구방법 ............................................................................... 15
    1. 자료수집 .................................................................................... 15
    2. 주요변수의 측정 및 구성 ......................................................... 15

제 5 장 연구결과 ..................................................................................... 21
  제 1 절 측정 자료의 검토 .................................................................. 21
    1. 응답자 속성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3. 상관계수 결과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 24
    1. 회귀분석 결과 개요
    2. 텔레비전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3. 인터넷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4. 신문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제 6 장 결론 및 논의 ................................................................................. 35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35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38

참고문헌 .................................................................................................. 39
부록 ......................................................................................................... 44
표 목차

[표 1]미디어 의존도 설문문항 ................................................................. 17
[표 2]위험지각 설문문항 ................................................................. 18
[표 3]관여도 설문문항 ..................................................................... 19
[표 4]예방행동 설문문항 ................................................................. 18
[표 5]개인적 위험지각 요인분석 결과 ............................................... 21
[표 6]사회적 위험지각 요인분석 결과 ............................................... 21
[표 7]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 23
[표 8]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값 ...................................................... 24
[표 9]변인 간 상관관계 ..................................................................... 25
[표 10]텔레비전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25
[표 11]텔레비전 의존도가 예방행동에 미치는
매개 변인의 간접효과 .................................................................. 27
[표 12]인터넷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29
[표 13]신문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 32
그림 목차

[그림 1]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 .................................................. 11
[그림 2] 연구모형 ................................................................................ 13
[그림 3] 텔레비전 의존도와 관여도의 상호작용 그래프 ...................... 27
제 1 장 서 론

2015년 5월 신종 호흡기감염증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환자가 국내에 발생하였다. 5월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전국민을 공포에 몰게 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많은 학교들은 메르스 확산 우려로 휴교했으며 자택 근무를 추천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소비가 줄고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했다(박효정, 2015). 이번 메르스 사건에서 한국 언론이 보인 문제점은 정보 투명성과 대처의 신속성이 부족이었다. 메르스 초기에 정부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나 병원측의 피해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메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SNS와 인터넷을 통해 루머들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확산되면서 전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 환자가 어느 지역 어떤 병원에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1차적으로 제공해야 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접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 대응에 대해 감시자, 비판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동시에 행한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주요 질병 위험 이슈로 국가적 제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우리 사회 역시 올리히 백이 말한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올리히 백(Beck, 1999)은 무한적인 과학발전이 글로벌 위험사회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위험사회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위험요소에 대해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또한 코벨로와 그 동료들은(Covello, Winterfeldt, & Solvic, 1986)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이해 관련 집단들 간에 신체적, 환경적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이나 의미,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 하기 위한 결정, 행동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원자력기술,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 사안들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메스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 상황 속에서
더욱 크게 작용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와 의견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이로써 대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형성 시키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담론은 메스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위험에 대한 설명과 정보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발생 가능한 위험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빠른 대처와 방안, 예방 지침을 제안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송해룡, 조항민, 2015).

위험사회에서 재난 발생시 미디어를 통해 위험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밀레티와 피츠패트릭은(Mileti & Fitzpatrick, 1991)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위험에 대해 교육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 예방 행위를 촉구하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예방행위를 촉진 시키고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위기 보도는 국민들의 안전을 이끄는 목적을 갖지만, 동시에 공포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나 재난 중에서도 질병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전의 신종플루, 사스(SARS),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와 같이 세계적인 대유행성 질병은 큰 공포의 대상이 되며 질병의 발생원인과 시기, 발병 강도, 확산 가능성 등 예상하기 어렵고 높은 불확실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 사람들은 예상하기 힘든 불안한 상황에서 질병 요인과 예방에 대한 대처방안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 질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대책이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고 위험 대비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대중매체에 의존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의존은 더욱 높아진다. 미디어 의존 이론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사람들은 미디어가 위기를 극복할 전문적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디어 의존은 강화 될 수 있다(Lowrey, 2004). 사람들은 재난 원인, 재난 영향, 정보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강화된 미디어 집중 경향을 드러내게 된다(Miller & Godel, 2009). 그러므로 질병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이 인식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도가 더욱 증가하고, 미디어에 의존함으로서 얻는 정보나 인식들은 국민들의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위험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절차의 현 진행 상태를 알려 위기에 대응하여 공극적으로 효과적인 예방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 발생시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존함에 따라 질병에 대해 인식하는 위험 지각의 수준이 형성될 것이며 이때 미디어 의존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의 질병에 대한 관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수용자의 관여도 정도에 따라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공극적으로 예방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최근의 미디어 환경이 신문,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가 공존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능동적인 미디어 소비가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 간에 미디어 의존도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텔레비전과 인터넷 미디어 간의 눈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이수, 즉 메르스 질병에 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확인하고 형성된 위험지각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질병 재난 발생시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을 통해 예방행동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정책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위기관리 방안을 세우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미디어 의존도

1. 미디어 의존 이론

재난 중에서도 유행성 질병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시기와 강도를 예상하기 어렵고 질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회적 위기를 가지고 온다. 사람들은 사회 혼란 속에서 위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고 질병에 대한 정보 욕구를 증가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갑작하게 된다. 이러한 재난 현상에서 미디어, 개인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모두 상호 의존적 관계(dependency relationships)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system dependency theory: MSD)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1976년 산드라 볼로키치(Sandra J. Ball-Rokeach)와 멜빈 드플로(Melvin J. DeFleur)가 개발한 이론으로, 미디어 이용을 통해 충족되는 욕구에 의존하면 할수록 미디어가 사람들 생활에 미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Ball-Rokeach & DeFleur, 1976). 이 이론은 미디어 자체의 영향력을 설명하기보다, 사회 체계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수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효과와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와 미디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여기서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세가지로 이해(understanding), 지향성(orientation), 그리고 오락(play)로 알려져 왔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개인이 특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미디어 의존이 높을수록 미디어의 메시지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게 되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신념, 태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Ball-Rokeach, Rokeach, & Grube, 1984; Grant, Guthrie, & Ball-Rokeach, 1991).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의존 개념이 매체 영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베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감시스러운 유행성 질병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적절한 정보와 대안을 갖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위험 정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Jin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행동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이며 위험을 느끼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미디어 의존 이론의 핵심이다(Bell‐Rokeach, 1985).

2. 재난과 미디어 의존

은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Lyu, 2012).

이렇게 텔레비전과 신문이라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인 인터넷, 이 세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 뉴스 보도를 수용할 때 작용하는 미디어 의존도는 개인이 미디어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인 이해(understanding)와 지향성(orientation) 차원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understanding)는 정보 획득, 지식, 사실의 인식, 그리고 해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람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때 발생한다 (Gudykunst & Kim, 1997). 베르스와 같은 유행성 질병 재난 발생시, 사람들은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질병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지향성 (orientation)에 대한 욕구는 행위(ac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Ball-Rokeach, 1985; DeFleur & Ball-Rokeach, 1989; Rokeach & Grube, 1984). 따라서, 뉴스 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를 이해와 지향성 측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한 언론의 질병 재난 보도 내용 분석만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주영기, 유명순(2011)은 한국 신문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보도를 전단과 예후 프레임으로 살펴 보았고 그 결과 예방행동에 ‘예후’ 프레임보다 피해 확인을 바탕으로 건강위협 상황 판단 중심의 ‘전단’ 프레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재난 보도가 시청률을 의식해서 선정적이라는 비판(이연, 2008),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속보성을 중요시 한다는 지적(백선기, 이욱기, 2012)을 제기하는 등 보도의 형식을 분석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메시지 위주의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미디어에 의존하는 수용자의 지각과 행동변화를 분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그들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고, 미디어의 메시지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의존도가 주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위협지각

1.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과 차별적 영향력 가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위험지는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의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impersonal impact hypothesis)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 관련 메시지에 관하여 개인 중심적으로 위험을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위험지각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고 메스 미디어는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에 따르면 사회적 차원의 위협지각에는 미디어가, 개인적 차원의 위협지각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대화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디어가 미치는 효과에는 미디어와 메시지 요인 이외에 정보원의 특징, 수용자의 심리 상태, 상황의 특성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스 미디어가 사회적 차원의 위험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하는 스나이더와 로즈(Snyder & Ruose, 1995)의 차별적 영향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이 제기 되었다. 이 가설은 메스 미디어가 개인적 차원의 위협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면서 영향력이 차별화 되는 원인으로 미디어 내용과 선명성 그리고 개인적 관여도를 고려하고 있다. 내용의 선명성이 높은 메스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마치 본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느낌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차동필, 2010).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느끼며 관여도가 높을 때에도 개인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미디어의 영향은 미디어 노출 정도와 사용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질병 재난이라는 특수한 위협 상황에서 단순한 미디어 노출과 사용 정도가 아닌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의존하는 정도가 개인적 위협지각과 사회적 위협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가설을 바탕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2.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위험지각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메르스 같은 유행성 질병 위험에 대해 이 질병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다(Bauer, 1960; Taylor, 1974). 슬로빅(Slovic, 1992)은 위험지각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위험지각은 취약성과 심각성 측면에 적용되는 주관적인 지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위험지각의 차이는 개인적 차원의 위험지각과 사회적 차원의 위험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위험지각이라면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과 같이 개인이 위험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개인의 취약성과 "나의 생명에 치명적이다"와 같이 개인에게 느끼지는 위험의 심각성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위험지각은 "내 주변 사람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과 같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 위험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과 "메르스는 우리나라 사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와 같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미디어 의존 이론은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이 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봐서 질병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차동필(2011)은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과 미디어 의존 이론을 이용하여 청년실업에 관한 대학생의 위험지각에 메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청년실업에 관한 미디어 노출은 대학생의 사회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쳤고,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턴과 덕(Morton & Duck, 2001)의 연구에서도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피부암에 관한 타인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피부암에 대한 개인적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피부암에 관한 정보를 신문을 통해 더 많이 접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타인)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관여도

1. 관여도 조절효과


사람들이 이슈에 관여할 동기가 각각 다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에 따라 관여의 정도를 변화시킨다.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태도이다. 이는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David, 2009). 이슈 관여도는 개인의 인지적인 동기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을수록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처리 과정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질병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면 이 이슈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고 이용하게 된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된 정보를 찾는 행동의 적극성과 활동성이 이슈에 대해 중요함을 느끼는 정도, 관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된다(김수정, 성민경, 2011).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것이고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여도는 조절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위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개인적으로 관련이 많다고 생각할 때 매스 미디어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여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었다. 관여도가 높고 낮을 때, 위험지각을 높이는데는 낮추는데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선행 연구에서 위험 이슈에 대한 지식이 높고 관여도가 높은 젊은 성인일수록 위험지각이 낮게 보고되었으나, 또 어떤 연구에서는 위험 이슈 관여도가 낮을수록 위험지각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Johnson, McCaul & Klein, 2002). 지역사회 관여도와 위험지각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여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간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Schere, & Glynn, 2001). 또한 스탠필드와 벨투이젠(Stapel & Velthuijsen, 1996)은 사람들이 자기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에 노출됐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적, 사회적 두 차원의 위험평가를 모두 중대시켰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관여도와 위험지각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관여도가 위험 지각에 미치는 영향, 정보 처리 과정과 메시지의 속성과의 관여도 주효과를 살펴보는데 치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서의 관여도에 따라 미디어 의존도가 위협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질병이 얼마나나게 나에게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지 정도에 따라 미디어 의존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라는 특별한 유행성 질병처럼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위험을 이해하는데 미디어와 같은 외부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 질병 관련 정보에 대해 가지고 는 관심과 관여도는 위험지각과 정보추구 행위로서의 미디어의존과 위험지각과 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4절 예방행동

1. 위험지각과 예방행동

개인의 예방행동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설명한 모델로서 건강신념모델(the health belief model)은 사람들의 질병예방 행동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지각을 제시한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1974;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 Sheeran & Abraham, 2001). 이 두 가지 주요 지각은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이다. 건강 신념 모델은 이 두 가지 경고(신념)이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총 4가지의 요인이 되는 지각들을 설명하고 있다(<그림1> 참조). 자신이 질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각된 취약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지각된 심각성,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이 이득이 되는 것을 지각하는 지각된 이점(perceived benefits),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 실천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들을 지각하는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가 있다. 본 연구에는 건강신념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지각, 즉 위험지각의 하부 개념으로 나뉘었던 지각된 취약성과 심각성을 측정함으로써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1> 건강신념모델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보도의 미디어 의존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메르스 예방행동을 검토하였다. 예방행동(preventive behavior)이라던 개인이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빈성오, 2012). 본 연구는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예방행동이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메르스 포털 사이트에 배포하는 예방수칙들을 참조하여 자주 손 씻기, 기침 혹은 재채기 할 때 화장지로 가리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 차원에 대하여 공중 예방행동 차원에서 대형의료기관 이용을 자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 자제하기 등 개인위생 및 공중위생을 위한 행동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신문 미디어 의존도가 개인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것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2> 연구모형

RQ1: 메르스 보도에 대한 텔레비전 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그리고 관여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H1a: 텔레비전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텔레비전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1c: 텔레비전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텔레비전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1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H1f: 미디어 이용자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RQ2: 메르스 보도에 대한 인터넷 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그리고 관여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H2a: 인터넷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2c: 인터넷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2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H2f: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RQ3: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그리고 관여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H3a: 신문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신문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3c: 신문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신문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H3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H3f: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수용자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뉴스 미디어(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미디어 의존도 평가(이해, 지향성), 메르스에 관한 관심도 조사, 메르스에 관한 응답자의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그리고 예방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엠브레인 서베이 업체를 통해 335명의 대상자를 통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상자는 20세에서 5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 학력, 소득수준, 그리고 메르스 보도 이용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및 구성

(1) 미디어의존도

재난보도에 대한 개인의 미디어 의존은 세 가지의 미디어 의존 목적적인 이해(understanding), 지향성(orientation), 오락(play) 가운데 메르스 질병 재난 상황에 맞는 목적적인 이해와 지향성에 대한 요인 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미디어 의존도 관련 측정은 기존 연구들(Loges, 1994; Loges & Ball-Rokeach, 1993; Morton & Duck, 2000)에서 사용된 것처럼, 응답자들이 사용한 매체가 자신들의 미디어 이용 목적들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의존도는 로케스(Loges, 1994), 로케스와 발로키치(Loges & Ball-Rokeach, 1993)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고 구교태(2014)의 재난인식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각각의 미디어 의존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
(Cronbach’s Alpha Test)를 실시하였다. 텔레비전 미디어 의존도의 신뢰도가 .895, 인터넷 미디어 의존도의 신뢰도가 .873, 신문 미디어 의존도의 신뢰도가 .933 으로, 세 가지 매체 모두 미디어 의존도를 구성하는 이해성과 지향성 항목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각 항목은 리커트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로 제시하였다 (<표1>참조).

<표1> 미디어 의존도 설문문항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차원</th>
<th>미디어유형</th>
<th>측정문항</th>
</tr>
</thead>
<tbody>
<tr>
<td>미디어 의존도</td>
<td>이해성</td>
<td>텔레비전</td>
<td>&quot;OO 매체는 내가 메르스 관련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uot;</td>
</tr>
<tr>
<td></td>
<td></td>
<td>인터넷</td>
<td>&quot;OO 매체는 메르스 관련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uot;</td>
</tr>
<tr>
<td></td>
<td></td>
<td>신문</td>
<td>&quot;OO 매체는 메르스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uot;</td>
</tr>
<tr>
<td></td>
<td>지향성</td>
<td>텔레비전</td>
<td>&quot;OO 매체는 메르스에 대해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uot;</td>
</tr>
<tr>
<td></td>
<td></td>
<td>인터넷</td>
<td>&quot;OO 매체는 메르스 관련 서비스 (의료)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uot;</td>
</tr>
<tr>
<td></td>
<td></td>
<td>신문</td>
<td></td>
</tr>
</tbody>
</table>

(2) 위험지각

위험지각은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여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김여라(2010)의 신종플루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지된 심각성과 취약성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 개인적, 사회적 차원을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지각된 취약성은 특정 위험요소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
원심각성은 어떤 특정 위기상황에서 이 위험이 나의 안전과 나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 포함한다.

메르스에 대한 위험지각을 취약성과 심각성 측면에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측정한 항목 총 8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위험지각의 신뢰도는 .791, 사회적 위험지각의 신뢰도는 .77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각 항목은 리커트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매우 그렇다” = 5)로 제시하였다(<표2>참조).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차원</th>
<th>측정문항</th>
</tr>
</thead>
<tbody>
<tr>
<td>위험지각</td>
<td>개인적</td>
<td>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td>
<td></td>
<td>나는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td>
<td>사회적</td>
<td>내 주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td>
<td></td>
<td>내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td>
<td></td>
<td>메르스는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다</td>
</tr>
<tr>
<td></td>
<td></td>
<td>메르스에 걸리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td>
<td>사회적</td>
<td>메르스는 우리나라 사회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td>
</tr>
<tr>
<td></td>
<td></td>
<td>메르스에 의한 대유행이 일어나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td>
</tr>
</tbody>
</table>

<표2> 위험지각 설문문항
(3) 관여도

관여도는 메르스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과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루닉(Grunig, 1989)과 최민욱(2009)의 연구를 참조하여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메르스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한 총 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6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각 항목은 리커트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로 제시 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메르스 관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표3>참조).

<표3> 관여도 설문문항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측정문항</th>
</tr>
</thead>
<tbody>
<tr>
<td>관여도</td>
<td>메르스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다</td>
</tr>
<tr>
<td></td>
<td>메르스는 나와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td>
</tr>
<tr>
<td></td>
<td>메르스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td>
</tr>
</tbody>
</table>

(4) 예방행동

메르스 예방을 위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행동 변수를 구성하였다. 측정을 위한 설 문 문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하는 예방수칙들을 참조하고 기존의 신종플루에 관련된 건강보호 행위의도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참조하였다.

메르스 예방행동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총 6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74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각 항목은 리커트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로 제시 하였다 (<표4>참조).
<표 4> 예방행동 설문문항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차원</th>
<th>측정문항</th>
</tr>
</thead>
<tbody>
<tr>
<td>예방행동</td>
<td>개인적</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td>
</tr>
<tr>
<td></td>
<td></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를 사용했다</td>
</tr>
<tr>
<td></td>
<td></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었다</td>
</tr>
<tr>
<td></td>
<td>사회적</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았다</td>
</tr>
<tr>
<td></td>
<td></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대형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했다</td>
</tr>
<tr>
<td></td>
<td></td>
<td>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병원을 자제했다</td>
</tr>
</tbody>
</table>

(5)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3가지 뉴스 미디어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의 미디어의존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각 미디어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을 통제하였다. 3가지 뉴스 미디어를 통해 메르스 보도를 이용하는 시간량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6)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요인분석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 (varimax rotation)을 채택하였다. <표 5>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개인적 위험지각의 4개의 문항 모두 채택하였다. 마찬가지로 <표 6>은 사회적 위험지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사회적 위험지각의 4개의 문항 모두 채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표 5 개인적 위험지각 요인분석 결과 (N = 335)

<table>
<thead>
<tr>
<th>개인적 위험지각 항목</th>
<th>요인1</th>
</tr>
</thead>
<tbody>
<tr>
<td>나는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d>.817</td>
</tr>
<tr>
<td>메르스에 걸리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td>
<td>.806</td>
</tr>
<tr>
<td>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d>.768</td>
</tr>
<tr>
<td>메르스는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다</td>
<td>.754</td>
</tr>
</tbody>
</table>

직교회전방식 (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사회적 위험지각 4개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1개의 요인으로 구별되어 일치하는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표 6 참조).

## 표 6 사회적 위험지각 요인분석 결과 (N = 335)

<table>
<thead>
<tr>
<th>사회적 위험지각</th>
<th>요인1</th>
</tr>
</thead>
<tbody>
<tr>
<td>메르스에 의한 대유행이 일어나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td>
<td>.841</td>
</tr>
<tr>
<td>메르스는 우리나라 사회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td>
<td>.838</td>
</tr>
<tr>
<td>내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d>.755</td>
</tr>
<tr>
<td>내 주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td>
<td>.661</td>
</tr>
</tbody>
</table>
제 5장 연구결과

제 1 절 측정 자료의 검토

1. 응답자 속성

분석에 이용된 설문의 응답자 속성은 <표7>과 같다.

<표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N = 335)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분포</th>
<th>빈도수</th>
<th>구성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td>
<td>170</td>
<td>50.7</td>
</tr>
<tr>
<td></td>
<td>여</td>
<td>165</td>
<td>49.3</td>
</tr>
<tr>
<td>연령</td>
<td>20 대</td>
<td>75</td>
<td>22.4</td>
</tr>
<tr>
<td></td>
<td>30 대</td>
<td>84</td>
<td>25.1</td>
</tr>
<tr>
<td></td>
<td>40 대</td>
<td>88</td>
<td>26.3</td>
</tr>
<tr>
<td></td>
<td>50 대</td>
<td>88</td>
<td>26.3</td>
</tr>
<tr>
<td>학력</td>
<td>고졸 이하</td>
<td>49</td>
<td>14.6</td>
</tr>
<tr>
<td></td>
<td>대학교 재학</td>
<td>32</td>
<td>9.6</td>
</tr>
<tr>
<td></td>
<td>대졸</td>
<td>227</td>
<td>67.8</td>
</tr>
<tr>
<td></td>
<td>대학원 재학</td>
<td>5</td>
<td>1.5</td>
</tr>
<tr>
<td></td>
<td>대학원 졸업</td>
<td>22</td>
<td>6.6</td>
</tr>
<tr>
<td>거주지역</td>
<td>서울</td>
<td>180</td>
<td>53.7</td>
</tr>
<tr>
<td></td>
<td>인천</td>
<td>38</td>
<td>11.3</td>
</tr>
<tr>
<td></td>
<td>경기도</td>
<td>117</td>
<td>34.9</td>
</tr>
<tr>
<td>직업</td>
<td>전문직</td>
<td>41</td>
<td>12.2</td>
</tr>
<tr>
<td></td>
<td>관리직</td>
<td>15</td>
<td>4.5</td>
</tr>
<tr>
<td></td>
<td>사무직</td>
<td>153</td>
<td>45.7</td>
</tr>
<tr>
<td></td>
<td>서비스직</td>
<td>27</td>
<td>8.1</td>
</tr>
<tr>
<td></td>
<td>생산직</td>
<td>8</td>
<td>2.4</td>
</tr>
<tr>
<td></td>
<td>전업주부</td>
<td>40</td>
<td>11.9</td>
</tr>
</tbody>
</table>
총 응답자는 335명으로 남자가 170명 (50.7%), 여자가 165명 (49.3%)으로 구성되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었으며 20대가 22.4% 30대가 25.1% 40대가 26.3% 50대가 26.3%를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학력은 67.8%가 대졸인것으로 나타났다. 14.6%가 고졸 이하에 해당되었고 9.6%가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1.5%대학원 재학, 6.6%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었다.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다음과 같다(<표8>참조).

<표8>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값 (N = 335)
3. 상관분석 결과

<표9>는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각 매체별 미디어 의존도인 텔레비전 의존도, 인터넷의존도, 신문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관여도, 예방행동의 상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변인들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신문의존도와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만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9>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 = 335)

<table>
<thead>
<tr>
<th>변수</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r>
</thead>
<tbody>
<tr>
<td>1. 텔레비전의존도</td>
<td>-</td>
<td>.392**</td>
<td>.511**</td>
<td>.133*</td>
<td>.175**</td>
<td>.159**</td>
<td>.176**</td>
</tr>
<tr>
<td>2. 인터넷의존도</td>
<td>.392**</td>
<td>-</td>
<td>.137*</td>
<td>.256**</td>
<td>.245**</td>
<td>.278**</td>
<td>.247**</td>
</tr>
<tr>
<td>3. 신문의존도</td>
<td>.511**</td>
<td>.137*</td>
<td>-</td>
<td>.019</td>
<td>.066</td>
<td>.203**</td>
<td>.130*</td>
</tr>
<tr>
<td>4. 개인적위험지각</td>
<td>.133*</td>
<td>.256**</td>
<td>.019*</td>
<td>-</td>
<td>.787**</td>
<td>.562**</td>
<td>.647**</td>
</tr>
<tr>
<td>5. 사회적위험지각</td>
<td>.175**</td>
<td>.245**</td>
<td>.66*</td>
<td>.787**</td>
<td>-</td>
<td>.631**</td>
<td>.626**</td>
</tr>
<tr>
<td>6. 관여도</td>
<td>.159**</td>
<td>.278**</td>
<td>.203**</td>
<td>.562**</td>
<td>.631**</td>
<td>-</td>
<td>.605**</td>
</tr>
<tr>
<td>7. 예방행동</td>
<td>.176**</td>
<td>.247**</td>
<td>.130*</td>
<td>.647**</td>
<td>.626**</td>
<td>.605**</td>
<td>-</td>
</tr>
</tbody>
</table>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2절 연구문제 및 가설검증

1. 회귀분석 결과 개요

메르스와 같은 질병 재난 상황에서 메르스 보도에 대한 매체별 미디어 의존도가 질병에 대한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그리고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메르스에 대한 관여도가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지 상호효과를 확인하고 매개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은 SPSS 및 SPSS PROCESS macro version 2.15 (Hayes, 2015)에 제공되는 모델 양식 중 본 연구에서 검토하려는 가설 및 모델과 일치하는 Model 7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Model 7은 미디어 의존도와 관여도의 상호작용이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을 경유하여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다. 매개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bootstrap sample 수를 10,000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인구 사회적 요인인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수준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2. <RQ1. 텔레비전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표10> 텔레비전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H1a: 텔레비전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텔레비전 의존도는 \((b = .041, p = .462)\) 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H1a는 지지되지 않았다.

H1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텔레비전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에 텔레비전 의존도와 \((b = -.126, p = .079)\) 관여도의 유의미한 상호 작용 \((X*M)\)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여도는 텔레비전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1c: 텔레비전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텔레비전 의존도가 \((b = .514, p = .036)\) 사회적 위험지각에 유의미하게 양의 방향으로 사회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가설 H1c는 지지되었 다.

H1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텔레비전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에 텔레비전 의존도와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b = -0.126, p = .038)\)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model1 을 이용하여 조절효과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텔레비전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지는 정적 관계가 낮은 관여도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인 사람들에게는 텔레비전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았을 때, 사회적 위험지각 매개변인에 한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인덱스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Hayes, 2015)가 유의했다. 구체적인 패턴을 살펴보았을 때, 관여도가 낮을 때만 사회적 위험지각에 의한 매개효과가 유의했다 (effect=.053, bootstrap SE=.033,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 .003 to .133).

<표 11> 텔레비전 의존도가 예방행동에 미치는 매개 변인의 간접효과

<table>
<thead>
<tr>
<th>관여도</th>
<th>Effect</th>
<th>Bootstrap SE</th>
<th>Bootstrap CI</th>
</tr>
</thead>
<tbody>
<tr>
<td>-.767</td>
<td>.053</td>
<td>.033</td>
<td>.003 to .133</td>
</tr>
<tr>
<td>.000</td>
<td>.021</td>
<td>.018</td>
<td>-.005 to .065</td>
</tr>
<tr>
<td>.762</td>
<td>-.010</td>
<td>.015</td>
<td>-.046 to .014</td>
</tr>
</tbody>
</table>
H1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은 (b = .447, p = .000) 예방행동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1e는 지지되었다.

H1f: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은 (b = .328, p = .001)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1f는 지지되었다.
<표 12> 인터넷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의존도

관여도

b = -.107
p = .083

개인적 위험지각

b = .455
p = .056

사회적 위험지각

b = .250
p = .295

예방행동

b = .333
p = .001

b = .438
p = .000
3. <RQ2> 메르스 보도에 대한 인터넷 의존도,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그리고 관여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분석결과

H2a: 인터넷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터넷 의존도는 \( b = .455, p = .056 \) 개인적 위험지각에 유의수준 0.1하에서 confidence interval = -0.0127 to 0.9230 으로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H2a는 지지되지 않았다.

H2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에 인터넷 의존도와 \( b = -.170, p = .083 \) 관여도의 상호작용\((X*M)\)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여도는 인터넷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2c: 인터넷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인터넷 의존도는 \( b = .250, p = .255 \)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H2c는 지지 되지 않았다.

H2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에 인터넷 의존도와 \( b = -.057, p = .295 \) 관여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X*M)\)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여도는 인터넷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2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은 ($b = .438, p = .000$) 예방행동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2e는 지지되었다.

H2f: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은 ($b = .333, p = .001$)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2f는 지지되었다.
신문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여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신문 의존도

관여도

개인적 위험지각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b = -0.040$  
$p = 0.472$

$b = 0.081$  
$p = 0.703$

$b = -0.014$  
$p = 0.830$

$b = -0.039$  
$p = 0.878$

$b = -0.014$  
$p = 0.830$

$b = 0.456$  
$p = 0.000$

$b = 0.329$  
$p = 0.001$
4. <RQ3: 메르스 보도에 대한 신문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 예방행동, 그리고 관여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 가?> 분석결과

H3a: 신문 의존도는 개인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문 의존도는 (b = -0.039, p = .878) 개인적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로, 가설 H3a는 지지되지 않았다.

H3b: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에 신문 의존도와 (b = -0.014, p = .830) 관여도의 상호작용 (X*M)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여도는 신문 의존도가 개인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3c: 신문 의존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문 의존도는 (b = .081, p = .703)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로, 가설 H3c는 지지되지 않았다.

H3d: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에 신문 의존도와 (b = -0.040, p = .472) 관여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X*M)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관여도는 신문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3e: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개인적 위험지각은 \( b = .456, p = .000 \) 예방행동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3e는 지지되었다.

H3f: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은수록 높은 예방행동 수준을 보일 것이다.

사회적 위험지각은 \( b = .329, p = .001 \)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설 H3f는 지지되었다.

위<표10>에서 가설화 하지 않았던 영향이 관측되었는데, 신문 의존도가 \( b = .077, p = .041 \) 예방행동에 유의수준 0.05이하의 유의미한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 결론 및 논의

제 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한국은 매년 여러 종류의 재난들이 있었다. 최근의 큰 이슈였던 국내 재난으로는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2015년 5월에 시작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주요 질병 위협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장벽이 낮아지고 감염 질병의 대유행의 위험이 증대하는 때에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수용자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예방행동을 하는 상호작용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질병 재난시 미디어의 역할과 그 영향력이 수용자의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나아가 각기 다른 뉴스 매체에 의존할 때 질병에 대한 위험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매체 별로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뉴미디어인 인터넷으로 나누어 메르스 보도에 대한 각각의 의존도가 위험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른지 상호효과를 확인한다. 동시에 매개 효과 및 조절된 매개 효과까지 검토하여 미디어의존도가 궁극적으로 예방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관여도의 주효과로서 개인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질병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관련이 있는지 영향에 따라 미디어 의존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여도가 주요 조절변수로서 패턴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동변화를 보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데 있어서 관여도가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미디어 효과의 연구들은 미디어 효과를 알기 위해 독립변수로서 미디어의 노출이나 이용정도를 측정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노출정도가 아닌 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의존하는가, 즉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의존도를 측정함으로서 사람들이 각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함에 따라서 미디어가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텔레비전 의존도만이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사회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의존도와 신문 의존도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에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과 차별적 영향력가설을 확인해보았다. 비개인적 영향력 가설은 사회적 차원의 위험지각에는 미디어가, 개인적 차원의 위험지각에는 개인의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Tyler & Cook, 1984). 이 연구 결과를 따르면 매스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스와 같은 유행성 질병 사태 시,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이 위험지각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 재난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차별적 영향력 가설은 매스미디어가 미디어 내용과 선명성, 개인적 관여도와 같은 차별적 요소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위험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는데(Snyder & Ruose, 1995)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하였다. 인터넷 의존도만이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못했다. 인터넷 의존도의 측정 방식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인터넷이 질병 위기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해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관여도를 조절 변인으로 간주하여, 미디어 의존도가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에 주는 영향 및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해보았다. 관여도는 동기(motivation)와 흥미(interest)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정보 추구(information seeking)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가설에서는 관여도가 높을 때 미디어의존도가 위험지각에 주는 영향력이 낮을 때 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며, 관여도가 높을 때 텔레비전 의존도와 상호작용 효과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나타났다. 나아가 관여도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의해 매개된 텔레비전 의존도의 예방행동에 대한 영향 또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관여도가 높으면 본인이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고 본인과의 관련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있는 사회적 위험지각 자체가 높아져 일종의 천장 효과(ceiling effect)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위험지각도 매우 높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관여도가 높은 이들은 이미 높은 사회적 위험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체 의존도 자체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관여도가 낮을 때, 즉 이슈와 본인과의 관련성이 중요성이 낮은 사람들의 텔레비전의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고, 그러한 영향이 예방행동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텔레비전은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며 수동적인 매체이다(박종민, 2003).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이 농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편도가 없어도 쉽게 뉴스 보도를 수동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여도가 낮을 때 텔레비전의 의존도가 사회적 위험지각 영향력이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 매체인 텔레비전의 역할은 유형성 질병과 같은 일시적인 위험 상황에 적합한 매체로서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와 정보들이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텔레비전 매체가 공적으로 영향력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인터넷 의존도 자체는 높았으나 의존도가 위험지각과 예방행동에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인터넷의 의존도를 측정할 때, 인터넷의 매스 미디어 역할과 대인적 역할을 세분화하여 어떤 역할에서 의존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설문했기 때문에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터넷은 농동적으로 사용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에 의존한 때에는 이미 높은 위험지각을 갖고 있는 상태일 것이기에 때문에 미디어 의존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화 하지 않았던 영향이 관측되었는데, 신문 의존도가 예방행동에 유의미한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가지 뉴스 미디어 중 유일하게 신문만이 예방행동에 직접효과를 미쳤다. 신문은 기사의 헤드라인과 기사가 실린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Tewksbury & Althaus, 2000).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시 신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다룬 내용은 메르스 였을 것이며 예방행동 수칙에 대한 정보를 주요하게 부각시키고 이를 지키는데 더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의존도, 인터넷 의존도, 신문 의존도를 예측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각각의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 모두 예방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건강실험보델을 이용한 메타분석 연구(조희숙, 2004)에서 위험지각이 예방행동에 영향을 준 결과가 본 데이터로 재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유형성 질병 발생시, 가장 중요한 대처인 사람들의 예방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위험을 지각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국내에 메르스 비상체제 사태가 일어난 시기를 중점으로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와 이슈에 대한 위협지각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2015년 5월 20일부터 메르스 비상체제 종료를 선언한 7월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메르스 보도에 대한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지난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에 응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응답자 개인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매체로 미디어에 의존했는지를 그리고 이 의존도가 미디어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과 관계를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패널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필요가 있다. 또한 유행성 질병이 선언된 당시에 설문조사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표본이 335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수가 적다고 볼 수 있어 통계적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차후 표본 수를 늘려서 그 검증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의존도를 측정할 때, 인터넷의 메스 미디어 역할과 대인적(interpersonal)역할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개인적 영향력가설과 차별적 영향력 가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위험지각과 예방행동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jzen(1985)의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따르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의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이론화 하고 있다. 그렇에도 위험지각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면밀히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이론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제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미디어 역할을 파악하고자 보도에 대한 각 미디어 의존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을 각각 나누어 미디어 별로 어떻게 다른 영향력을 갖을 수 있는지를 통해 미디어의 역할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 권 3 호, 128-147.


김원제, 이창주, 하연희, 조항민 (2009).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인 및 요인 간 영향관계에 관한 탐색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호, 80-123.


박종민 (2003). 휴대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의 미디어 속성 차이와 이용 동기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221-249.


백선기, 이육기 (2012).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 호, 7-54.


장정현, 심재철 (2013). 피사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낙관적 편견의 간접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 권 1 호, 111-137.


Process Model 7을 이용한 텔레비전 의존도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thead>
<tr>
<th>Antecedent</th>
<th>Consequent 개인적 위험지각</th>
<th>Consequent 사회적 위험지각</th>
<th>Consequent 예방행동</th>
</tr>
</thead>
<tbody>
<tr>
<td></td>
<td>b (SE)</td>
<td>p</td>
<td>b (SE)</td>
</tr>
<tr>
<td>박래비전 의존도</td>
<td>.487 (.286)</td>
<td>.090</td>
<td>.514 (.245)</td>
</tr>
<tr>
<td>개인적 위험지각</td>
<td>-</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위험지각</td>
<td>-</td>
<td>-</td>
<td>-</td>
</tr>
<tr>
<td>관여도</td>
<td>.458 (.051)</td>
<td>.000</td>
<td>.933 (.218)</td>
</tr>
<tr>
<td>상호작용(X*M)</td>
<td>-.126 (.072)</td>
<td>.079</td>
<td>-.126 (.060)</td>
</tr>
<tr>
<td>학력</td>
<td>.037 (.034)</td>
<td>.282</td>
<td>.031 (.032)</td>
</tr>
<tr>
<td>소득수준</td>
<td>.043 (.023)</td>
<td>.071</td>
<td>.026 (.020)</td>
</tr>
<tr>
<td>성별</td>
<td>.168 (.062)</td>
<td>.007</td>
<td>.157 (.054)</td>
</tr>
<tr>
<td>나이</td>
<td>-.003 (.003)</td>
<td>.407</td>
<td>-.001 (.002)</td>
</tr>
<tr>
<td>Constant</td>
<td>.178 (.947)</td>
<td>.850</td>
<td>.0118 (.853)</td>
</tr>
</tbody>
</table>

Model Summary

\[
R^2 = .359 \\
F(7, 327) = 17.009, \quad p = .000
\]

\[
R^2 = .441 \\
F(7, 327) = 27.689, \quad p = .000
\]

\[
R^2 = .497 \\
F(7, 327) = 44.654, \quad p = .000
\]
Process Model7을 이용한 인터넷 의존도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thead>
<tr>
<th></th>
<th>Consequent</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개인적 위험지각</td>
</tr>
<tr>
<td></td>
<td>$b$ (SE)</td>
</tr>
<tr>
<td>인터넷 의존도</td>
<td>.455 (.237)</td>
</tr>
<tr>
<td>개인적 위험지각</td>
<td>-</td>
</tr>
<tr>
<td>사회적 위험지각</td>
<td>-</td>
</tr>
<tr>
<td>관여도</td>
<td>.459 (.054)</td>
</tr>
<tr>
<td>상호작용(X*M)</td>
<td>-.107 (.061)</td>
</tr>
<tr>
<td>학력</td>
<td>.032 (.035)</td>
</tr>
<tr>
<td>소득수준</td>
<td>.042 (.022)</td>
</tr>
<tr>
<td>성별</td>
<td>.152 (.061)</td>
</tr>
<tr>
<td>나이</td>
<td>-.001 (.003)</td>
</tr>
<tr>
<td>Constant</td>
<td>3.502 (.196)</td>
</tr>
</tbody>
</table>

Model Summary

- $R^2 = .359$
- $F(7, 327) = 17.009, p = .000$

- $R^2 = .426$
- $F(7, 327) = 23.373, p = .000$

- $R^2 = .497$
- $F(7, 327) = 44.398, p = .000$
Process Model7을 이용한 신문 의존도의 회귀분석 결과

<table>
<thead>
<tr>
<th></th>
<th>개인적 위험지각</th>
<th>사회적 위험지각</th>
<th>예방행동</th>
</tr>
</thead>
<tbody>
<tr>
<td></td>
<td>$b$ (SE)</td>
<td>$p$</td>
<td>$b$ (SE)</td>
</tr>
<tr>
<td>신문 의존도</td>
<td>-.039(.256)</td>
<td>.878</td>
<td>.081(.212)</td>
</tr>
<tr>
<td>개인적 위험지각</td>
<td>-</td>
<td>-</td>
<td>-</td>
</tr>
<tr>
<td>사회적 위험지각</td>
<td>-</td>
<td>-</td>
<td>-</td>
</tr>
<tr>
<td>관여도</td>
<td>.532(.211)</td>
<td>.012</td>
<td>.645(.185)</td>
</tr>
<tr>
<td>상호작용(X*M)</td>
<td>-.014(.067)</td>
<td>.830</td>
<td>-.040(.056)</td>
</tr>
<tr>
<td>학력</td>
<td>.033(.033)</td>
<td>.325</td>
<td>.029(.031)</td>
</tr>
<tr>
<td>소득수준</td>
<td>.049(.023)</td>
<td>.031</td>
<td>.031(.020)</td>
</tr>
<tr>
<td>성별</td>
<td>.182(.061)</td>
<td>.003</td>
<td>.167(.053)</td>
</tr>
<tr>
<td>나이</td>
<td>-.001(.003)</td>
<td>.738</td>
<td>.001(.003)</td>
</tr>
<tr>
<td>Constant</td>
<td>1.773(.776)</td>
<td>.023</td>
<td>1.356(.676)</td>
</tr>
</tbody>
</table>

Model Summary

$R^2 = .356$

$F(7, 327) = 14.148, p = .000$

$R^2 = .429$

$F(7, 327) = 22.946, p = .000$

$R^2 = .501$

$F(7, 327) = 44.470, p = .000$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박미사

설문조사 측정문항

논문 제목: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위험지각 및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2015년 5월에 시작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주요 위험 이슈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대중매체에 의존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안 정보를 추구하게 되었다. 미디어 의존 이론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사람들은 미디어가 위기를 극복할 전문적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디어 의존은 강화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난 원인, 재난 영향, 정보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강화된 미디어 집중 경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질병 재난 시 사람들의 미디어 의존이 인식과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의존도가 보도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이슈, 즉 메르스 질병에 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확인하고 형성된 위험지각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성별: 남/녀
직업:
나이: (20대~50대)
거주지: (수도권)
교육수준
1) 고졸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 졸업 4) 대학원 재학 5) 대학원 졸업 이상
소득수준 (월평균 총소득을 기준으로)
1) 100만원 미만 2) 100~200 3) 200~300 4) 300~400 5) 400~500 6) 500이상
매르스 보도 이용시간 (텔레비전/신문/인터넷)
1. 텔레비전을 통해 메르스 보도를
   1) 전혀보지 않았다  2) 15분이내  3) 30분이내  4) 1시간이내  5) 1시간이상
2. 인터넷을 통해 메르스 보도를
   1) 전혀보지 않았다  2) 15분이내  3) 30분이내  4) 1시간이내  5) 1시간이상
3. 신문을 통해 메르스 보도를
1) 전혀보지 않았다  2) 15분이내  3) 30분이내  4) 1시간이내  5) 1시간이상

미디어 의존도 측정
미디어 의존도 이해성
1. 텔레비전 매체는 내가 메르스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신문 매체는 내가 메르스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3. 인터넷 매체는 내가 메르스 관련 필요한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4. 텔레비전 매체는 메르스 관련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5. 신문 매체는 메르스 관련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인터넷 매체는 메르스 관련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7. 텔레비전 매체는 메르스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8. 신문 매체는 메르스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9. 인터넷 매체는 메르스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미디어 의존도 지향성

1. 텔레비전 매체는 메르스에 대해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준비할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신문 매체는 메르스에 대해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준비 할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메우 그렇다
1  2  3  4  5

3. 인터넷 매체는 메르스에 대해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준비 할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메우 그렇다
1  2  3  4  5

4. 텔레비전 매체는 메르스 관련 서비스 (의료)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메우 그렇다
1  2  3  4  5

5. 신문 매체는 메르스 관련 서비스 (의료)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메우 그렇다
1  2  3  4  5
6. 인터넷 매체는 메르스 관련 서비스 (의료)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그렇다

1  2  3  4  5

위험지각 측정

지각된 취약성

개인적

1.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그렇다

1  2  3  4  5

2. 나는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그렇다

1  2  3  4  5

사회적

1. 내 주변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그렇다

1  2  3  4  5

2. 내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그렇다

1  2  3  4  5
지각된 심각성

개인적
1. 메르스는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메르스에 걸리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사회적
1. 메르스는 우리나라 사회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메르스에 의한 대유행이 일어나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판여도 측정
1. 메르스와 관련된 이슈에 관심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메르스는 나와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3. 메르스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이슈이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예방행동 측정

개인적

1.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를 사용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3.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사회적

1.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은 가끔되면 가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대형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3. 나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방문안을 자제했다
   전혀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다
   1         2         3         4         5
Abstract

The Effects of Media Dependency related MERS Virus news on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Issue Involvement–

Misa Park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RS Virus outbreaks have occurred in Korea 2015. It caused the chaos in Korean society and the role of mass media has been raised throughout this public health cri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a dependency related MERS virus news on risk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This study analyzed 355 samples with multiple regression for verifying media dependency of television, internet, and newspaper related MERS News on personal/societal risk perception of MERS and preventive behavior. Furthermore, it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issue involvement of MERS news on risk perception as a moderated mediation. The results show that first, the television dependency influenced positively on societal risk perception. Second, television dependency has significant effects on societal risk perceptions with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issue involvement. Thus, television dependency has effects on preventive behavior through societal risk perception as a moderated mediation by issue involvement. It indicates that when issue involvement is low, television dependency
has positive effects on societal risk perception and through this moderated mediation, societal risk perception influences on preventive behavior positively.

Keywords: MERS virus, Media dependency, personal risk perception, societal risk perception, issue involvement, preventive behavior
Student Number: 2014–22329